로마서 강의안 김규섭

로마서 서론적 소개

1. 그리스도인 이전의 바울

이번 학기 동안 본 강사와 함께 바울이 저술한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먼저 본 서신을 저술한 바울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인 그레코-로만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저자인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헬레니스틱 디아스포라 유대인 (a Hellenistic diaspora Jew)이었습니다. “헬레니스틱”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헬레니즘 시대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지중해 세계를 장악한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지중해 세계 전체의 문화적, 언어적 통일을 도모했습니다. 그 이후 지중해 세계 전체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유대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바깥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나뉩니다. 튀빙엔 대학의 신약학 교수 마르틴 헹엘 교수의 적절한 지적처럼 팔레스타인 바깥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지역 조차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두 가지 점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1) 첫번째로 헬레니즘화가 되는 정도는 지역과 공동체, 개인 마다 다릅니다. 존 바클레이 교수는 헬레니즘화된 정도를 3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 헬레니즘에 적대적인 (antagonistic)인 그룹입니다. 두 번째 분류는 헬레니즘에 어느 정도 동화된 그룹 (cultural convergence)입니다. 세 번째 분류는 헬레니즘에 상당 부분 동화된 그룹 (cultural assimilation)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분류 즉 헬레니즘에 적대적인 그룹도 언어적 측면 그리고 사상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두번째로 지적되어야 하는 점은 헬레니즘화가 진행되어도 유대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일신론이고 두번째는 율법준수입니다. 하버드대 유대학 교수 샤이 코헨은 고대 세계에서 유대인인지 아닌지 옷차림이나, 할례 여부만으로는 유대인인지 분간할 수 없고, 그 사람이 토라를 준수하는지 아닌지로 유대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다신교를 믿을 수도 있고, 율법 준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교자 (apostate)입니다. 고대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울 (즉,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바울)은 어떤 분류에 해당될까요? 바울은 첫번째와 두번째 분류 사이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바울)은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이방 세력과 문화로부터 자신을 구분하고자 했을 것이며, 율법 준수에 대해서 열성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헬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살핍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당부분 헬라적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는 작지 않은 대도시 시민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음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보고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은 상당 정도의 사법권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감세 혜택을 받으면서, 황제 숭배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여러 가지로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면, 폼페이 – 아우구스투스의 대결 속에서 다소 시민들이 아우구스투스를 지지했기 때문에 많은 다소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헌을 바울의 부친이나 조부가 세운 관계로 바울 집안에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이 어떤 경위로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우리가 바울이 로마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인 동시에 세계 시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고급 랍비 교육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은 보고합니다 (행 22:3).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았는지는 학자마다 견해가 갈리지만, 바울이 다소와 예루살렘에서 유대식 교육 뿐 아니라 헬라식 교육을 받았다는 것에는 학자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르틴 헹엘은 유대인 학당이었던 헬라어 초등학당에 다닌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이건 어떻게 추정하느냐면 언어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유대세계 바깥에서 널리 퍼져 있던 호메로스나 유리피데스의 저작들을 암송한 흔적이 별로 없고 그의 헬라어는 70인역이나 유대종교적 문헌들의 어휘를 사용하고 그런 말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람마튜스 (γραμματεύς)가 원래 하급관리, 비서를 의미하는 말인데, 팔레스타인식 헬라어 (어색한 헬라어, 일종의 콩글리쉬?)로 바울은 서기관 율법 학자 (원래는 노미코스(νομικός)라는 율법학자를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있지만 바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고전 1:20). 바울이 사용하는 능숙하게 사용하는 헬라어만 보아도 바울이 헬라식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물론 유대인이었습니다. 빌 3:4-6에서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바리새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아마도 열심당)고 말합니다.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서 힐렐 학파인지 샴마이 학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그룹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13-14을 보면 바울은 동년배 유대인들 중에서 앞서 있었고 (원어는 끊임없는 진보를 하다),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성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바리새인들이 AD70년 유대멸망이전에 어떤 부류였는지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의 보고를 제외하고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게 학자들은 바리새파는 부유한 (최소한 중산층)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귀족적, 보수적 당파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 바리새파는 세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묵시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습니다. 묵시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왜 박해했는지 생각해봅시다 (사도행전).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언어적 구분이었을 것입니다. 헬라파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집단 일 것입니다. 히브리파는 팔레스타인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모국어로 하는 집단일 것입니다. 두 집단은 아마도 언어적 차이 때문에 예배와 집회를 함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뿐 아니라 두 집단은 신학적으로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포함한 유대교 열성분자들이 핍박하던 파당은 헬라파였지 히브리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헬라파는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 히브리파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건재했습니다. 아마도 헬라파는 그들이 가진 신학적 입장으로 인하여 히브리파와는 달리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신학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없는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유대교 열성분자들의 핍박을 받았으며, 이러한 헬라파의 가르침은 이후의 바울 신학의 토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면 헬라파의 가르침이 단순히 law-free gospel (율법없는 복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롬 8; 갈 5, 6). 헬라파는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스데반은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행 6장), 스데반이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스데반 설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전에 대한 비판입니다. 유대 열성주의자들은 성전이 비판받는 것이 왜 기분 나빴을까요? 헬라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는 주장에 따라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러한 주장에 따라 성전과 정결법의 중요성을 축소했을 것이고, 비느하스의 전례에 따르는 유대 열성분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이 하나님-토라-유대민족을 배반한 가르침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성막을 더럽힌 자들을 처단한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을 처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에 종속되어 있었고, 성전 제의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일 수 있었고, 그래서 박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마주칩니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고전 15장).

1. 다메섹에서의 바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면합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서 큰 방향 전환을 일으킵니다. 갈 1:11-12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복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의 연구와 묵상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형상기독론 (롬 8:29, 고후 4:4, 골 1:15; 참조: 겔 1:26)과 아담기독론 (롬 5:12-21)을 다메섹에서 깨달았으며,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신 분으로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의 깨달음은 다메섹에서 기원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메섹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갈 1:16을 봅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이방인 선교와 직접 연관짓습니다. 이것은 행 9장의 설명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기 잇느니라…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행 9:6-15).” 그러므로 다메섹 사건은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 (롬 2:16, 16:25), 즉 그가 받은 복음의 기원은 다메섹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 1. 다메섹 사건의 영향
		1. 달라진 것.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고, 바울은 이것을 계시 (갈 1:16; 아포칼륍사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1.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2.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함을 입증하셨고 그를 높이셨다 (롬 1:3-4; 빌 2:7-11).
3. 율법에 대한 폭력적인 열심은 잘못되었고 교회가 박해받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4. 율법의 성격, 성전, 할례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5.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나아올 이방인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6.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구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은혜로 부르시고 구별하셨다” (갈 1:15). 이것은 예레미아와 같은 일종의 예언자적 부르심을 암시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렘 1:4-8)). 특별히 이 부르심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갈 1:16). 그리스도는 분명히 바울 앞에 나타났고 (고전 16:8) 그리고 갈 1:15에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을 바울이 소명사건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인가?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사 49:5-6에 비추어 이해했음이 분명하다. “주의 종으로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 이며…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 49:6)”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된 내용 중 중요한 것은 형상 기독론이다. 곧 그리스도께서 형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형상 기독론은 바울 복음의 형성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εἰκών (형상)은 본시 아담에게 주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야콥 예르벨과 다른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εἰκών (형상)의 칭호가 아담기독론과 관련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다.[[1]](#footnote-1) 그렇다면 빌 2:6-11에서 사용된 εἰκών (모양; ἐν μορφή Θεοῦ)와 에이콘 (골 1:15)는 아마 거의 동의어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듯하다.[[2]](#footnote-2) 아담기독론의 모티프로서 에이콘은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모델 혹은 패턴 (*Vorbild*) 임을 보여줄 것이다 (καὶ ἐποίησεν ὁ θεὸς τὸν ἄνθρωπον, κατ᾽ εἰκόνα θεοῦ  (창 1:27)).[[3]](#footnote-3) 특히 εἰκών (형상)은 영광과 연관된 신자들이 연합 (conform) 해야하는, 승귀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롬 8:29; 2 Cor 3:18; 4:4; cf. 1 Cor 15:21.; 15:45 ). 골로새서 1:15의 에이콘도 이와 유사한 맥락 속에서 언급된다 (cf. Col 3:10). 그렇다면 왜 에이콘 (형상)이 승귀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던은 골 1:15의 에이콘 (형상)을 지혜전통과 연관시킨다.[[4]](#footnote-4) 지혜가 εἰκών (에이콘)으로 표현된 유대문헌을 증거로 제시한다 (*Wis* 7:26 (an image of God’s goodness); Philo, *Leg* I. 43 (image and vision of God). 또한 던은 지혜기독론적 칭호인 장자와 형상이 나란히 쓰이는 구절을 검토한다 (“firstborn mother of all things” in Philo, *QG* IV 97). 반면 김세윤은 형상 (εἰκών)이 바울의 다메섹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본다. 다메섹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 (겔 1:26을 보라)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본다.[[5]](#footnote-5) 곧, 메르카바 전통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같이 그리스도 현현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메르카바 전통에서 말하는 형상을 그리스도에게 바울이 적용했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아담이시라는 개념을 역으로 도출했을 수 있다 (기존의 학자들은 아담 기독론에서 형상 기독론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니엘 7:13의 인자와 같은 이로 이해했을 수 있다. 김세윤은 인자 (사람의 아들) 개념 (또한 지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

1. 서신작성자 바울 (Paul the Letter-Writer)

본래 그레코-로만 서신의 서두는 일반적으로 간결하다. 곧, 단순한 문법, 간결함 그리고 서신적인 상황을 알리는 정형적인 문구가 등장한다. 헬레니즘 시대의 서신에서는 우리가 서신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주관적이고 강렬한 개인적 관심사들이 드물게 나타난다. 헬라 서신들은 대개 수다스럽지 않다. 대개 발신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언급하더라도 건강 등에 대한 정형화된 문구에 그친다). 특히 유대서신의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실제 보내진 서신이 아닌 서신 형식의 수필이 그레코-로만 시대에 존재했다. 이러한 서신 장르를 서신-수필 혹은 문학적 서신이라고 부른다. 이런 서신들은 대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조언을 늘어놓는 훈계적-교육적 (paraenetic-didactic)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문학적 서신은 서두와 결구에서는 서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본론에서는 종잡을 수 없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문학적 서신은 서신과 수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서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간결하다.

형제 갈리오에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채 산다. (Seneca, De Vita Beata, 1).

세레누스가 세네카에게. 나 자신을 들여다 보면, 어떤 결점은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어떤 결점을 깊숙이 숨어 있다. (Seneca, De Tranquillitate Animi, 1).

이러한 문학적 서신의 간결성은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서를 위명서신 혹은 문학적서신 (literary epistle)로 보는 것을 망설여지게 한다. 문학적 서신이 아닌 일반적 서신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테온이 그의 형제 (ἀδελφῶι) 헤라클리데스에게. 진심으로 안녕과 건강을 빌며  (χαίρειν καὶ ὑγιαίνειν). 이 서신을 전달한 헤르모필루스는 – 에리우스의 친구 혹은 친척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글을 써주기를 간청했소. 헤르코필루스는 자기가 케르크모누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오. 부디 적당한 한도 내에서 그의 일을 도와 발전시켜주시오. 그 외에 드릴 말씀은 몸 관리를 잘하여 건강을 유지하시라는 것이요. 안녕히 (ἔρρωσο). (P.Oxy. 746).

나의 주인님들 우리야,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들, 요시비아의 아들 마탄과 […]의 아들 네리아에게, 당신의 종 마우치아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하게 나의 주인님들의 부귀를 보살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CPJ* II Cowley 38).

바울은 독특한 서신 저술가이다. 그는 일반적인 헬라적 서신 양식에 많은 변경을 가한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헬라 서신의 서두 패턴은 다음과 같다 (William Dorty).

서두: 발신자 및 수신자.

인사말 (χαίρειν)과 건강에 대한 기원 (ὑγιαίνειν) 혹은 수신자를 위해 신에게 기원함.

이러한 헬라 서신의 전형적 인사말 패턴을 따르는 신약의 서신서는 요한 3서이다(1:2; Ἀγαπητέ, περὶ πάντων εὔχομαί σε εὐοδοῦσθαι καὶ ὑγιαίνειν, καθὼς εὐοδοῦταί σου ἡ ψυχή).

반면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서두 패턴과 달리 서두를 길게 늘여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당대 헬라 서신 쓰기 관행과 다른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다. 그의 서두 패턴은 다음과 같다 (참고: Jeffrey A.D. Weima).

1. 발신자 공식
2. 발신자 이름
3. 타이틀
4. 타이틀의 근원을 나타내는 묘사적 간략한 묘사적 구절
5. 송신자 공식
6. 수신자
7. 수신자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묘사하는 긍정적 묘사
8. 인사 공식
9. 인사
10. 수신자
11. 신적 근원
12. 감사단락
13. 감사를 나타내는 동사 (εὐχαριστέω)와 감사의 대상 (하나님)
14. 감사의 방식 (부사구 혹은 분사; 예: πάντοτε περὶ ὑμῶν προσευχόμενοι)
15. 감사의 원인 (예: ἀκούσαντες τὴν πίστιν ὑμῶν ἐνΧριστῷ Ἰησοῦ καὶ τὴν ἀγάπην…)
16. 설명 (예: καθώς…)
17. 기도 보고 (the prayer report)

일반적인 헬라서신과 바울서신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하며, 수신자에 대한 긍정적 언급과 소망, 그리고 신에게의 기원을 말한다. 그러나 헬라서신과 바울서신은 많은 차이점을 지닌다. 서두가 길다는 것을 제외하고 바울 서신의 인사말의 특징을 고려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바울 서신은 헬라서신의 일반적인 인사말인 χαίρειν καὶ ὑγιαίνειν 혹은 χαίρειν 을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신학에서 중요한 단어이며, 히브리적 개념인 χάρις καὶ εἰρήνη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말을 변경한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례적으로 긴 감사단락 (수신자로 말미암은 감사)를 포함하며, 감사단락은 대개 긴 기도보고를 포함한다. 세 번째로 바울이 서두에서 언급하는 단어들은 본론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그러므로 바울의 인사말은 본론의 내용을 예고 (foreshadow) 하거나, 암시한다. 네 번째로 바울은 수신자를 잘 알지 못하거나, 직접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수신자에 대한 긴 감사를 언급할 때가 있다. 바울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이면서도, 아마도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살라는 암묵적인 권면의 뉘앙스도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본론의 내용에 맞추어, 서두를 구성한다. 갈라디아서의 경우를 보면 바울은 감사와 기도보고 단락을 생략한다. 이것은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엄히 꾸짖으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는 것을 암시한다. 곧 바울 서신의 서두를 보면 본론의 내용과 뉘앙스,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감사단락이 등장하지 않으며 고린도후서에서는 감사가 아닌 찬송 단락으로 대체되어있다. 수신자들과 바울이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에는 수신자들로 인한 긴 감사의 단락이 등장한다.

1. 로마서 기록 목적

로마서의 저술 목적은 해석자들에게 해묵은 숙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선교적, 목회적, 변증적 이유를 고려합니다. 선교적 목적이란 바울이 로마를 그의 선교 전진 기지로 만들고 싶어했을지 모른다는 추측에서 비롯됩니다. 변증적 목적이란 바울이 그의 서신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복음을 변호하려고 했고, 그것을 통하여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고자 했다는 관점입니다. 야콥 예르벨은 바울은 본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의 복음을 변호하려고 했으며, 실질적 서신의 수신자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로마서의 목적은 로마 교회 내부 갈등 (특히 유대그리스도인들의 지위와 관련된)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목회적 목적).

 우리는 로마서가 한 가지 목적 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는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을 수도 있으며, 위에서 말한 3가지 목적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의 계획을 알려주는 단락 (롬 1:10-15; 15:14-33)을 볼 때 우리는 그의 사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다음의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피츠마이어, 1993).

1. 로마 공동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소망과 오래된 계획,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방해 받은 이유에 대한 것이다.
2.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바람 또는 좀 더 잘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그들과 나누고자 하는 바람이다.
3. 바울이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지혜로운 자들과 무식한 자들에게 진 빚이다.

곧, 로마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계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로마로의 여행은 좌절되었고, 그는 로마서를 그의 사도적 방문의 대체물 (*an* *epistolary substitute for his apostolic visit*)로서 보내게 됩니다. 그는 로마로 갈 수 없지만, 여전히 로마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했고, 그를 통하여 로마 여행에 대한 지원을 추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마서는 분명한 선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로마서에는 목회적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크레스투스 (아마도 그리스도)로 인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소요가 발생했으며, 클라디우스 황제는 칙령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로마교회의 다수를 차지했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당했다면,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주로 이방 출신으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돌아왔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을 것이고, 어떠한 종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롬 9-11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지위에 대하여 길게 논의하는 것과 14-15장에서 약한 자들 곧 음식 규정과 절기 규정에 얽매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는 바울의 논의는 이러한 갈등을 반영할 수 있다. 곧 바울은 자신의 편지인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특별히 그의 복음을 통하여 이러한 갈등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목회적인 목적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롬 1:11-12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통하여 피차 안위 받기 원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함으로써 (1:15), 그의 복음의 절실성과 심오함 그리고 구약 종교와의 연속성을 확증하고, 변호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변증적 목적). 그리고 공동체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의 복음이 얼마나 적절한지 보여주고, 또 추후의 서바나 선교를 위한 지원을 로마 교회로부터 도모하려 했을 것입니다 (선교적 목적).

특별히 우리는 서신의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롬 1:5; 롬 16:26):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서신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이러한 “믿음의 순종” 특히 이방인들이 믿음의 순종에 이르는 것에 대한 바울의 강조는 로마서도 그의 이방인에 대한 선교적 사명의 일부로 여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증적 목적, 선교적 목적, 목회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로마서에 깔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목적은 복합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이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울은 자기 복음은 다른 전도자들의 복음과 구별되는 특별한 복음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로마교인들은 그의 특별한 복음을 처음 듣는 입장일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3-4과 1:16-17에서 그의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의 복음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다윗 가문에서 출생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선포하고 아담적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후, 그를 일으켜 자신의 우편에 높여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시고 자신의 통치권을 대행하게 하셨다. 이것은 창조와 언약의 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한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곧 의인 (또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화해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새 피조물)이 된다. 종말에 재림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최후의 심판 때 이 사람을 자신의 대속의 제사에 의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전되어 그 통치에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임을 변증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의 신적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김세윤, 158-159).

1. Jacob Jervell, *Imago Dei: Gen. 1.26f im Spätjudentum, in der Gnosis und in den paulinischen Briefen* (FRLANT 5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0). [↑](#footnote-ref-1)
2. Dunn, *Christology in the Making*, 115. 다만 제임스 던은 모르페가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깃을 상실한 아담이라고 이해한다. [↑](#footnote-ref-2)
3. Dunn, *Christology in the Making*, 188. [↑](#footnote-ref-3)
4. Dunn, *Christology in the Making*, 165. [↑](#footnote-ref-4)
5. Seyoon Kim, The Origin of Paul’s Gospel; Eerdmans: 223-268. [↑](#footnote-ref-5)